

태고종 완주 봉서사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제

“수승한 공덕으로 온 누리 보살피리니...”



서울 태고사에서 완주 봉서사로 이운된 호국삼천불에 대한 점안식이 봉행되고 있다.



봉서사 호국삼천불 이운·개금 점안식에서 점안의식을 진행하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전북 완주의 대표적 명산인 종남산과 천호산 사이에 우뚝 솟은 서방산 산 아래 풍수지리화상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금계포탄(禁戒抱卵) 형국에 봉황이 머문다는 뜻을 지닌 완주 서방산 봉서사(鳳棲寺)에 3000 부처님이 나부셨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7일 전북 완주 봉서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과 총무원장 운산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혜종 스님, 원로의원 혜암·원법·월산·도운 스님과 각 지역의 종무원장 스님, 이경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오규삼 완주군 부군수, 김명중 완주경찰서장, 유효숙 완주 용진면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경제회복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제’를 봉행했다.

종단의 호국삼천불은 100년 뒤면 국가문화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귀중한 목조불”이라며 “신묘공덕과 영험함이 깃든 진묵 대사의 주석 처였던 봉서사 법회에 동참한 대중에게 부처님의 큰 가피가 있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태고종 행정부원장)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봉서사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다가 前 주지 호산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돼 오늘에 이른다”며 “과거 봉서사 소유 입자 24만평이 국방부에 수용됐는데, 군사시설이 이전되면 이 땅은 마땅히 봉서사로 환원돼야 하므로 종단과 종도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월해 스님은 이어 “이날 삼천불 이운법회를 계기로 진묵전을 이전 복원하는 한편 상운암터에 선방을 개설하고 마력전



패물을 모시고 거행된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의식모습(사신 위·오른쪽 위).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제’에는 태고종 스님과 지역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진묵전 복원·선방 개설로 총림금 본산 만들 터”

이날 이운법회를 봉행하게 된 호국삼천불은 1986년 태고종 중앙불교회관이 있던 태고사에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을 위해 과거·현재·미래의 삼세로 나뉘어 각 천불씩 조성됐으나, 최근 중앙불교회관에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원이 입주하게 되자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봉서사로 이운하게 된 것. 예로부터 불상을 옮겨 모실 때는 반드시 개금을 하고 점안을 해 모시는 것이 불가의 전통 법도로 내려오고 있다.

제16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영단을 마련하고 헌화와 참배로 극락왕생을 기원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공덕은 수승하시어 백옥과 같이 맑고 깨끗함으로 온 누리 세상을 살피시고 32상 80중호의 묘한 상호와 공덕으로 장엄하셨으니, 그 공덕을 찬탄해 증생을 두루 섭수해 편안하게 하리라”는 법어를 내리고 봉서사가 종단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대화사를 통해 “우리

에 선방을 유지해 선암사에 이은 총림금 본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회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소속 어산종장 스님들의 집전으로 종사이운과 삼천불 이운, 개금점안 의식이 법패와 천수바라 등의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태고종의 ‘영산재 국토순례대장정’ 세 번째 행사를 겸한 이번 ‘경제회복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제’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만동불사도 함께 봉행했다.

신라 성덕왕 시절(727년) 해월(海澈) 선사가 창건한 봉서사는 보조 선사, 나옹 선사, 진묵 대사 등 한국 최고의 고승들이 주석했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특히 신통력으로 많은 이적(異跡)을 행했다고 전해지는 진묵 대사가 출가, 수행하며 열반한 전통사찰로 전북유형문화재 제108호 진묵대사부도가 남아 있다.

글=조동제 전북지사부 bud1080@naver.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대축제”

산상차

야생수제 구중구포 뽕잎차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합천에서 가까운 천년 무공해의 지역 유장 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맞은 뽕잎을 채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중구포의 전통제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재로 쓰이는 실로 바랄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 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맞은 뽕잎은 신선엽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맞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명숙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http://www.ggzen.or.kr

NAVER 산상차 검색

“첫서리 맞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고혈압·혈액순환

뽕잎차 만드는 과정

1. 당뇨, 고혈압에 도움 2. 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 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 잘 잤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뽕잎차의 효능

· 당뇨에 뽕잎차가 최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차음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땅하게 할 정도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맞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부산 중구 안미선
· 대구 북구 석현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경북 안동 김정일
· 경기도 용인 박영철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 브랜드 수상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맞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선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 데일리 뉴스 소개 /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호주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연재 /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초심(구중구포 뽕잎차) 50,000원 → 35,000원 2통이상 주문시
발심(첫서리맞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을 금강선원
TEL 051)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